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학생측면의 기초연구

—간호학과 학생의 자아개념과 교육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문희 · 임난영 · 최선하 · 도경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목 차 〉

- | | |
|----------------|-----------------------------|
| I. 서 론 | 3. 학생의 전공 역할에 관한
교육자의 인식 |
| II. 연구방법 | IV. 요약 및 결론 |
| 1. 연구대상 및 기간 | 1. 학생의 제반 특성 |
| 2. 연구 도구 | 2. 전공 성취를 위한 자아개념 |
| 3. 분석 방법 | 3. 학생의 전공 역할에 관한
교육자의 인식 |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
| 1. 학생의 제반 특성 | |
| 2. 자아개념 | |

I. 서 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미국식 교육체제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간호교육은 현재 3년 수업년한의 전문대학과 4년 수업년한 이상인 대학교 간호학과 이상의 두가지 지위를 지닌 교육제도로 정착되기 까지 40여년간에 걸쳐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1989년 현재 전국에 17대학(국군사관학교 제외)에서 865명의 입학정원에 3,365명의 재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교육목적은 손옥순(1969)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전문대학이 전문간호사의 양성에 비중을 둔다면 대학은 학문적 탐구와 지도자육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학계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비판의 여론도 없지는 않다. 간로이

(1977)는 이미 1977년에 우리나라의 대학이 규모에 비해 그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학의 기능이 과거 소수의 정예교육에서 대중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대학의 간호교육을 교육과정의 형태, 구성, 방법 등의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즉 형태면에서 볼 때 의사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질병이나 신체기관별 접근이 현재까지도 잔존하여(정연강 등 : 1988) 건강 질병 연속체제적 접근이 부족되고 있다. 구성면에서 볼 때 보조과학 및 일반교양과목 안배가 적고(도복늬 : 1974, 정연강 등 : 1988), 전공위주로 편제된 교과구성상에도 성인간호학 비중이 타 과목에 비해 많다(김정자 : 1977). 방법면에서 볼 때 학생의 자긍심과 만족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면에서의 학생경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

고 있다(김애실 : 1974, 이성심 등 : 1990). 이들 평가의 공통점은 학생이 폭넓은 개인신장의 기회를 얻음으로써, 학문전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에 적응하며 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위와같은 흐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생의 자율성 신장은 대학에서의 교육과정 개발에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되므로, 그 핵을 이루는 학생에 관한 충분한 이해없이 교육과정은 설정될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통하여 학생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의 제반특성을 기반으로 학생의 요구를 파악한다.

둘째 학업성취를 위해 필요로 되는 학생의 인성을 자아개념을 통하여 평가한다.

셋째 전공교과의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는 교육자의 인식면에서 학생의 역할을 조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1990년 5.1-6.30 사이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재학생 총 169명과 이들의 전공 교과를 강의와 실습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총 39명의 교육자에 대하여 설문지에 의한 조사를 실시 하였다. 연구자료로 이용된 설문지는 학생의 경우 93.5%에 해당되는 158매와 교육자의 경우 87.2%에 해당되는 34매이었다.

2. 연구도구

학생의 자아개념 파악을 위해서 정원식(1968)이 개발한 자아검사의 내용중 문헌고찰을 통하여 간호전문직 교육특성에 비교적 유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 자아평가에 관한 문항을, 교육자가 인식하고 있는 역할면에서는 Bevis (1982)의 설문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조화 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는 전자가 Cronbach $\alpha=0.886$ 이었고, 후자가 $\alpha=0.739$ 를 나타내었다.

3. 분석방법

가장 부정적 인식을 1점에서 부터 가장 긍정적인 인식에 5점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설문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재 부호화하여 전산입력한 후 SPSS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아개념 분석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 의하여 영역별로 명명한 후 제 변수와의 관계를 t-test, ANOVA 검증하였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회귀분석에 의하여 알아보았다.

교육자의 인식은 전반적인 인식수준, 3가지 최상위 및 최하위 문항별로 각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t-test, ANOVA 로 의미 분석하였다.

기타의 일반적인 결과들은 빈도, 백분율, χ^2 -test 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학생의 제반 특성

1) 간호학과 재학생의 가정적·개인적 대학생활제 특성

간호학과 재학생 158명이 나타내고 있는 제 특성 중에서 대학 입학 전후의 가정환경·개인적 특성을 요약한 것이 표 1-1이다. 평균 가족크기는 5.1명이며, 본인을 제외한 평균형제수는 2.2명이었다.

이는 경제기획원에서 발표되고 있는 1975년도 한국의 평균가구원수 5.1명과 같고 1985년도 4.2명 보다는 그 수가 많다. 부친의 평균 연령이 52.9세이고, 고졸이상의 학력배경을 지닌 부친이 있는 학생이 78%이었다.

이 결과는 1985년도 서울시 거주 성인 남자 50-54세 군의 고졸이상 학력배경이 59.2%(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1985)인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1983~1987사이의 한양대학교 신입생 특성변화에서도 부모학력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고된바 있다. 가족의 월평균 총 수입이 100만원 이상이고, 85.4%의 학생이 양친 밑에서 경제적으로 중류이상의 환경에 있음이 드러났다.

학생들 개인적으로는 종교를 2/3이상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미경(1981)이 조사한 간호대생중 29.7%가 종교를 소유하고 있다는 결과보다 훨씬

표 1-1 간호학과 학생의 가정적, 개인적, 대학생활을 위한 특성

제 특 성	결 과
1. 가정적 특성 평균가족 크기 본인이외의 평균형제수 가족의 월평균 총수입 부친의 평균연령 부친의 학력이 고졸이상인 학생 양부모 생존학생	5.1±0.9명 2.2±0.8명 108.2±67.7만원 52.9±4.3 121명 (78.0%) 134명 (85.4%)
2. 개인적 특성 종교소유자 재수이상 경험자 본가 통학생 고교재학시 가장 아쉬웠던 점 : 교양과 취미 고교재학시 가족경제를 염려한 학생수 제문제시 부모와 상담하는 학생수	93명 (58.9%) 47명 (30.1%) 99명 (63.1%) 91명 (57.0%) 39명 (24.7%) 76명 (55.4%)
3. 대학생활을 위한 특성 대학진학을 위한 일반인들의 동기 인식 : 1위 : 사회적으로 대우받기 위해 2위 : 취직전망 대학생의 일반적 역할인식 : 1위 : 교양배양 2위 : 능력있는 사회인 대학생활비 부모의 부담학생수 대학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에 만족하는 수 본 대학교 지원 동기 : 1위 : 성적 2위 : 취업전망 학과에 대한 정보 주제공자 : 1위 : 교사 2위 : 신문, 잡지 기전공자 전체인생에서 원하는 5가지 : 1위 : 화목한 가정 2위 : 좋은 친구사귀기 3위 : 소신대로 사는 삶 4위 : 직업내 존중과 인정획득 5위 : 남을 돕고 봉사하는 생활	76명 (48.4%) 49명 (31.2%) 96명 (61.1%) 50명 (31.8%) 19명 (10.8%) 100명 (63.7%) 52명 (32.9%) 37명 (23.4%) 45명 (28.8%) 37명 (23.7%) 37명 (23.7%) 83명 (52.5%) 63명 (39.9%) 55명 (34.8%) 49명 (31.0%) 47명 (29.7%)
총 응답 학생수	158명 (100.0%)

높다. 재수 이상의 경험은 1/3이상이었으며, 가족이 있는 자택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2/3에 불과한데 이 결과는 한양대학교 신입생 동향(1985)과 비교할때 본가 통학자는 간호학과 생이 더 많고 재수 경험학생의 정도는 전체 한대생에 비해 10%정도 낮아서 여학생만이 입학하고 있는 본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학생신변의 문제를 부모와 상담하는 학생은 과반수를 넘고 있어서 부모와의 대화가 원활함을 보여주었다. 간호전문대생을 조사한 이정숙(1982)은 친구와의 대화가 제일 많다고 보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고교재학시 아쉬웠던 부분이 교양과 취미생활에 있었다는 응답이 많아 대학진학 위주의 고교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이 대학생생활을 교양과 취미부분으로 보충하려는 기대가 고교때부터 내재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이를 뒷바침하듯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학진학동기를 사회적으로 대우받기 위해서라든가, 대학생들이 수행해야 하는 일반적인 역할에 대해 교양배양을 으뜸으로 들고 있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대중교육 기관으로

지향하고 있는 요구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여겨진다.

대학생활비용을 부모 이외로부터 부담해야 하는 학생은 10.8%에 해당되며, 이들이 고교때부터 가족경제를 염려한 학생도 24.7%나 되며, 대학생생활에 드는 총 비용에 대하여 만족하는 학생이 63.7%에 불과한 점은 대학내 장학, 복지수혜의 폭이 늘어나야함을 시사한다.

2) 학년별 전공관련 사전지식 · 교육과정부담 · 현재의 당면문제

대학의 전공학과 선택을 위해서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사전지식 없이 지원했음이 표 1-2에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학년별로 보면 1학년 36.4%서부터 2학년 28.8%, 3학년 25.8%, 4학년의 경우 9.1%만이 사전지식이 있었다.

이처럼 저학년 일수록 사전지식 소유율이 높은 것은 최근의 입학 지원동향으로도 보여지는데 이는 1985-1987년간의 한양대학교 신입생 입학 동향중 전공분야에 관한 사전지식이 부족했다는 지원결과

표 1-2 학년별 전공관련 사전지식, 교육과정부담, 현재의 당면문제

제 번 수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계
	No. (%)	No. (%)	No. (%)	No. (%)	No. (%)
사전지식유무	있었다.	19(28.8)	17(25.8)	6(9.1)	66(100.0)
	없었다.	13(14.1)	19(20.7)	23(25.0)	37(40.2)
$X^2(3)=22.85^{**}, P=0.000$					
교과과정에 대한 부담	있다.	31(24.6)	35(27.8)	38(30.2)	126(100.0)
	없다.	15(46.9)	7(21.9)	5(15.6)	5(15.6)
$X^2(3)=12.97^{**}, P=0.004$					
현당면 문제 # 학업, 적응 장래의 진로, 이성, 경제 등	23(30.7)	20(26.3)	26(34.7)	6(8.3)	75(100.0)
	12(15.4)	15(19.2)	14(17.9)	37(47.5)	78(100.0)
$X^2(3)=30.10^{**}, P=0.001$					
계	37(23.4)	38(24.1)	40(25.3)	43(27.2)	158(100.0)

주 : * P < 0.05, ** P < 0.01
Missing Value = 5

와 일치한다. 1971년 이은옥 등이 보고한 자료에서는 조사대상 학생들의 35.7%가 입학요강조차 안 읽어보고 지원했다는 결과와도 대등소이다.

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79.7%가 부담된다고 하였고, 고학년에 이룰수록 그 정도가 커져서 1학년의 경우 17.5%인데 비해 4학년은 30.2%로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전공교과에 대한 책임관리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후술되는 학년별 전공기대 만족도와는 유관하리라 본다.

3) 간호학 기대에 대한 만족도

전공에 대한 기대에 만족하는 정도는 학년별로 볼 때 1학년에 가장 높아 75.7%, 2학년은 44.7%, 3학년에는 42.5%로 낮아졌다가 졸업반인 4학년은 3학년 보다 다소 높은 53.5%의 만족 수준을 보였다.

김주희(1982)는 3, 4년생만을 대상으로한 임상실습 만족도 조사에서 고학년에서의 실습후 만족수준이 높아진다는 점과 어느 정도 일치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동일한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1960년대의 하영수(1969)가 보고한 25.4%나 1970년대의 김조자 등(1979)이 보고한 29.3%보다도 배에 가까운 만족수준이다.

간호전문대생을 대상으로한 1970년대의 안선주(1975), 조경순(1977), 채경남(1977)의 보고 수준인 21.6%보다 이 역시 배 이상 높고 1980년대 이정숙(1982)이 보고한 45.0%보다도 높은 만족수준을 나타내었다.

출신고교와 주 성장지는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소재 고교졸업자는 87명으로 55.1%였는데 이는 동일 사립계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매(1973)의 자료에 나타난 83.3%, 김조자 등(1990)의 자료에 나타난 76.6%의 서울출신 고교졸업자에 비하면 크게 적다. 전국적으로 고교평준화 시책을 쓰고 있는 정책이 반영되어 서울 소재 대학에 지방고교출신학생의 입학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양상은 주 성장지별로 거의 비슷하게 간호학 기대에 관한 만족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 성장지가 서울 이외인 지방학생의 만족율이 20%이상 서

표 1-3 간호학 기대에 대한 만족도

제 변 수	만 족		계
	No. (%)	No. (%)	
학 년			
1학년	28(75.7)	9(24.3)	37(100.0)
2학년	17(44.7)	21(55.3)	38(100.0)
3학년	17(42.5)	23(57.5)	40(100.0)
4학년	23(53.5)	20(46.5)	43(100.0)
	$X^2(3)=10.43^*$, $P=0.015$		
출신고교소재지			
서울	37(42.5)	50(57.5)	87(100.0)
기타	48(67.6)	23(32.4)	71(100.0)
	$X^2(1)=8.90^{**}$, $P=0.002$		
주 성장 지			
서울	36(43.3)	47(56.6)	83(100.0)
기타	49(65.3)	26(34.7)	75(100.0)
	$X^2(2)=6.78^{**}$, $P=0.009$		
계	85(53.8)	73(46.2)	158(100.0)

주: * $P < 0.05$, ** $P < 0.01$

표 1-4 전과 희망 경험

제 변 수	있었다.	없었다.	계
	No. (%)	No. (%)	
학과선택시기			
입학원서 접수기간중	31(66.0)	16(34.0)	47(100.0)
고3부터 원서접수전	32(38.1)	52(61.9)	84(100.0)
고2말 이전부터	7(26.9)	19(73.1)	26(100.0)
	X ² (2)=33.06***, P=0.001		
교육과정에 대한 부담			
있 다.	62(49.2)	64(50.8)	126(100.0)
없 다.	8(25.8)	23(74.2)	31(100.0)
	X ² (1)=5.50*, P=0.020		
간호학 기대에 대한 만족도			
만 족	24(28.6)	60(71.4)	84(100.0)
불 만 족	46(63.0)	27(37.0)	73(100.0)
	X ² (1)=18.90***, P=0.001		
계	70(44.6)	87(55.4)	157(100.0)#

주 : * P < 0.05, ** P < 0.01, # Missing Value = 1

을 성장지 학생보다 높고 그 반대로 서울성장지 학생의 불만족율은 지방성장지 학생보다 약 20% 더 높았다.

4) 전과 희망 경험

입학 후 전과를 원했던 학생은 표 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44.6%로 거의 1/2에 가깝다. 이는 이은옥 등(1971)이 보고하고 있는 70.5%보다 훨씬 적은편이었다.

전공학과를 선택한 시기는 입학원서 접수기간중이 29.9%이며, 고3부터 원서접수전까지가 53.5%로써 이 둘을 합하면 전공을 위한 선택이 대학진학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때인 고3 이후 1년 이내의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학생이 83.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는 하영수(1969)와 이은옥 등(1971)이 고3 재학중에 전공학과를 결정한다고 제시한 81% 및 62.6%보다도 상당히 촉박하게 전공학과를 결정하는 것임을 보여 주었다. 한편, 채경임(1979)이 간호전문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고3 졸업 임박해서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이 27.5%라는 결과와 비슷한 것을 보면 이러한 결과는 비단

우리 간호학과만의 지원양상이라기 보다는 전체 사회적인 일련의 조류일지도 모른다는 선입견을 배제할 수 없다. 입학 후 전과를 원했던 경험은 학과 선택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졌던 학생군이 장기간에 걸쳐 학과선택을 신중히 고려한 학생군에서 전과를 원했던 경험이 많은 것이 현저하다.

즉 입학원서 접수기간중에 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66.0%, 고3부터 원서접수전 사이에 선택한 학생이 38.1%, 고2말 이전부터 학과 결정을 고려한 학생군에서 26.9%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간호학기대에 대한 불만족도 역시 전과를 원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군에서 그러한 경험이 없었던 학생군보다 높았고, 이는 각각 49.2% 및 63.0%를 나타내었다.

5) 간호학과 지원동기

대학의 학과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점은 표 1-5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적에 따라서가 가장 많은 32.3%였고, 그 다음이 취업을 생각해서가 23.4%로 이 두가지 이유만으로도 간호학을 지원하는 동기의 과반수를 넘는다. 적성과 흥미가 있어서는 불과 13.4%에 지나지 않는다. 입학동기에 있어

표 1-5 간호학과 지원동기

제 변 수	취 업	적성, 흥미	주위의 권유	성 적	장학복지등	계
	No. (%)	No. (%)	No. (%)	No. (%)	No. (%)	No. (%)
전화희망경험 #	있었다.	4(5.7)	12(17.1)	25(35.7)	11(15.8)	70(100.0)
	없었다.	17(19.5)	20(23.0)	26(29.9)	5(5.8)	87(100.0)
$X^2(4)=10.8*$, $P=0.050$						
교육과정에 대한 부담	있 다.	12(9.5)	28(22.2)	43(34.1)	11(8.7)	126(100.0)
	없 다.	9(28.1)	4(12.5)	9(28.1)	5(15.6)	32(100.0)
$X^2(4)=10.35*$, $P=0.034$						
계	37(23.4)	21(13.3)	32(20.3)	51(32.3)	16(10.7)	158(100.0)

주 : * $P < 0.05$, # Missing Value = 1

표 1-6 간호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용도

제 변 수	우호적 수용.	비우호적우용	계
	No. (%)	No. (%)	No. (%)
학과선택시기 입학원서 접수기간중 고3부터 원서접수전 고2말 이전부터	27(56.3)	21(43.7)	48(100.0)
	52(61.9)	32(38.1)	84(100.0)
	20(76.9)	6(23.1)	26(100.0)
$X^2(2)=3.02$, $P=0.300$			
전과희망경험 #	있 었 다.	33(47.1)	70(100.0)
	없 었 다.	25(28.7)	87(100.0)
$X^2(1)=5.58*$, $P=0.020$			
취업선택기관	75(63.6)	43(36.4)	118(100.0)
	8(53.3)	7(46.7)	15(100.0)
	16(64.0)	9(36.0)	25(100.0)
$X^2(2)=0.63$, $P=0.800$			
계	99(62.7)	59(37.3)	158(100.0)

주 : * $P < 0.05$, # Missing Value = 1

서 해외진출이 그 목적의 으뜸이었던 하영수(1969), 이은옥 등(1971), 김영매(1973), 한정석(1973)의 1970년대 초반의 자료들과는 대조된다. 그러나 최근 김조자 등(1978)이 취업을 위해서가 39.2%, 김조자 등(1990)이 적성과 흥미가 있어서가 38.3%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와 대비시켜볼때 향후 적성과 흥미에 따른 간호학지원 동기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견해는 전과를 원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군에서, 적성과 흥미에 따라 간호학을 지원한 학생들이 가장 낮아 불과 5.7%에 지나지 않는 점을 통해서도 암시되는 일이다.

교육과정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학생군에서도 그 지원동기가 성적에 따른 지원이었을 때 가장 높아서 34.1%이었던 것임에 비해 적성과 흥미에 따라 지원한 경우 가장 낮아서 9.5%로 나타나고 있었다.

6) 간호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용도

표 1-6은 간호학에 대하여 사회적에서 인식하는 양상은 어떠한지를 간호학과 재학생을 통하여 질문에 본 것을 제표한 것이다. 대상 학생의 99명 중, 62.7%가 우호적 인식을 보인 것임에 반해 59명 중, 37.3%가 비우호적이라는 반응의 인식을 나타냈다. 이는 전문직 이념과 직업현실에 대해 간호학

생들이 대체로 긍정적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정문숙(1976)의 견해와 비슷하다.

각 변수간에 차이가 의미있었던 변수별로 살펴보면 간호학과 선택시기를 장기간에 두고 계획했던 학생군에서, 대학생활동 전과를 원하지 않았던 학생군과 졸업 후 취업을 종합병원이나 양호적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원하는 학생군에서 그렇지 못한 학생군보다 훨씬 높은 우호적 인식을 보여주었고, 이는 각각 76.9%, 71.3% 및 64.0%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졸업 후 종합병원의 취업을 대다수 즉 118명(74.6%)이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최근 김조자 등(1990)의 조사결과 그 선호이유가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많고 직업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66.4%이라는 점과 그 맥락을 같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자아개념

자아란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그 자신을 의미한다. 사회속에서 지위나 능력을 규정지어주며 참여가치가 있는 생각과 행동을 행동내부로 옮겨주는 심리적 매개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표 2-1 5가지 최상위 및 최하위 자아개념

순위	내용	$\bar{x} \pm SD$
최상위 5가지		
1.	나는 우리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4.21±0.90
2.	나는 우리집 식구들이 나를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4.06±0.87
3.	우리집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여도 나를 항상 도와줄 수 있는 가정이다.	3.98±0.88
4.	나는 이제까지 나의 가족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다.	3.97±0.86
5.	다른 친구가 보는 입장이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3.89±0.71
최하위 5가지		
1.	다른 사람을 대할때에 좀 더 친절해야겠다.	2.41±0.85
2.	화를 내서는 안되겠다고 하면서도 어쩌다 화를 내는 수가 있다.	2.56±0.82
3.	오늘중에 해야 할일을 내일로 미루는 수가 있다.	2.62±0.75
4.	나는 모르는 사람과 어울릴 때 어딘지 어색함을 느낀다.	2.67±0.91
5.	기분이 언짢을 때에는 화를 잘내는 일이 가끔있다.	2.68±0.83

주 : 내용과는 관계없이 평균값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임

과제에 대한 태도·권리·의무 등을 학생 스스로 관리할 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장차 형성되어질 인간적인 태도결정에 영향력이 크다고 보겠다. 1987년도 한양대학교 신입생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45%로 나타낸 사회적 가치와 37%를 나타낸 학문탐구에 있었다. 이는 사회속에서 나를 인정받고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 생활속에서 성장을 꾀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자아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또한 학문탐구 역시 그것을 우선으로한 목적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간호학과 학생들의 자아개념을 총 63개의 문항으로 살펴본 바 가장 긍정적인 반응과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내용을 5가지로 요약한 것이 표 2-1이다. 최상위 긍정 문항 5가지 중에 4문항이 가정속에서 지각되는 나로써 학생들이 가정속에서 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가정속에서 사랑받으며(평균 4.21),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주고(평균 4.06), 곤경에서 도와주는 원천이 가정이며(평균 3.98), 가정내에서 원활한 대화의 교류(평균 3.97)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동료를 이해하고자 하는 정도도 평균 3.89로 긍정적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자아인식의 5가지는 대인관계에서 친절하지 못함과 어색함이 각각 평균 2.41 및 2.67이었고, 대인관계에서의 공격심 조절이 2.56 및 2.68로 인간관계속에서의 자기관리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상과 같은 자아개념에 대하여 대학 교육을 통하여 배양되어야 할 사회적 자아, 간호서비스 전문직의 중요한 부분인 가정적 자아, 그리고 인간관계속에서 나에 대한 조절에 관련된 자아의 3영역으로 파악하고자 요인분석(Factor analysis)한 바 매우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이후 이 3영역으로 유목화함이 타당하였기에 각각 요인 I을 사회영역, 요인 II를 가정영역 그리고 요인 III을 자기조절 영역 자아개념으로 명명하고 제표한 것이 표 2-2이다.

3영역의 자아개념중에는 사회 영역과 가정 영역이 각각 23.1과 24.5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로 가정영역 자아개념이 다소 높았다. 이것과 비교해 자기조절영역 자아개념은 크게 낮아서 17.1을 나타내었다.

각 영역간 자아개념의 관계의 정도와 관계의 방향은 표 2-3에서와 같다. 사회영역과 가정영역간에 0.267의 순상관 관계가 존재하며, 사회영역과 자기조절 영역간에는 그보다 다소 떨어지나 0.155의 순상관 관계가 있다. 가정영역과 자기조절 영역간에도 0.168의 순상관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총 자아개념에 대해서는 각 영역별로 사회영역, 가정영역, 자기조절영역의 순서로 0.694, 0.660 및 0.497의 순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었다.

1) 사회영역 자아개념

표 2-4에서 보듯이 사회영역자아는 1학년이 23.03, 2학년이 23.63, 3학년이 25.55로 1, 2 학년에 비해 3학년이 가장 낮고 4학년의 경우 24.18로 가장 높았다.

제 문제에 대해 부모와 상담하는 학생들이 안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긍정적이며 그것은 각각 23.50과 20.92를 나타내었다.

학교선택시기별로는 원서접수기간중에 학과를 선택한 경우 24.8로 그 이전부터 전공선택을 결정한 학생들보다 높았다.

전공에 대한 기대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불만족하는 학생들보다 사회영역자아가 긍정적이어서 대단히 만족하는 경우 25.66이나 대단히 불만족하는 경우는 21.71로 그 차가 크다.

한편 그 만족의 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낮아 20.68이었던 점은 보통이란 반응이 불만족에 가까운 반응에서 나타난 결과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미경(1981)은 사회적 자아와 간호학이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이경혜(1985)는 간호대학생의 가치 변화가 전공실습을 강의와 병행하게 되는 3학년때 현저한 변화를 거친다고 보고했다. 이은옥 등(1972), 최명애(1977), 이미경(1981)은 학생들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학업성취가 우수하며 적응을 잘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견해로써 이숙자(1980)는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일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다고 했으며 정문숙(1976)은 학생들이 전문직 이념과 직업현실을 충분히 이해할수록 긍정적이라고 했고, 권경남(1983)은 학생의 역할인식 측면에서 임상 실습시 자신감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 자신과 타인과의 인간관계에

표 2-2 문항별 요인분석

	순위	내 용	$\bar{x} \pm SD$	계	Eigen value
요인 I 사회적 요영	1.	사교적인 면에서 볼때 나에게서는 좋은점이라고는 없다.	3.2±0.9	23.1±4.2	9.050
	2.	나는 다른사람에게 친근한 사람이다.	3.3±0.7		
	3.	나는 어떠한 사태에서도 나자신을 잘 가누어 갈 수 있다.	3.2±0.8		
	4.	이만하면 나도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3.2±0.9		
	5.	낮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힘든일이다.	3.2±1.0		
	6.	나는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이다.	3.2±0.9		
	7.	나는 여자들간에 인기가 있다.	3.1±0.7		
	8.	나는 나의 처세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2.9±0.9		
요인 II 가정적 요영	1.	나는 우리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4.2±0.9	24.5±3.9	3.750
	2.	나는 우리집 식구들이 나를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4.0±0.8		
	3.	우리집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여도 나를 항상 도와 줄수 있는 가정이다.	3.9±0.8		
	4.	나는 이제까지 나의 가족들과 마음을 터 놓고 이야기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3.9±0.8		
	5.	나는 나의 가정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3.8±0.8		
	6.	나는 집안식구들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	3.8±0.8		
	7.	나는 우리집 식구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편이다.	3.7±0.9		
요인 III 자기조절 요영	1.	어떤때는 특별한 대상도 없이 욕설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3.2±1.1	17.1±3.5	3.609
	2.	이따금 남에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스러운 생각을 하는 수가 있다.	3.1±0.8		
	3.	나는 가끔 이성에 관한 농담을 하고 웃는다.	2.7±0.9		
	4.	어쩌다 남의 험담을 하는 수가 있다.	2.6±0.7		
	5.	기분이 언짢을 때에는 화를 잘내는 일이 가끔 있다.	2.6±0.8		
	6.	오늘중에 해야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때가 있다.	2.6±0.7		
	7.	화를 내서는 안되겠다고 하면서도 어쩌다 화를 내는 수가 있다.	2.5±0.8		

주: 내용과는 관계없이 평균값이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개념임.

표 2-3 영역별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

	요인 I 사회영역	요인 II 가정영역	요인 III 자기조절영역	총자아개념
사 회 영 역	1.000			
가 정 영 역	0.267**	1.000		
자 기 조 절 영 역	0.155**	0.168*	1.000	
총 자 아 개 념	0.694**	0.660**	0.497**	1.000

주 : * P < 0.05, ** P < 0.01

표 2-4 사회영역 자아개념

계 변 수	No.	\bar{x}	t 또는 F 값	유의도
1. 학년				
1학년	37	23.03		
2학년	38	23.63	2.97*	0.033
3학년	40	21.55		
4학년	43	24.18		
2. 제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상담				
한다.	131	23.50	2.81**	0.006
안한다.	25	20.92		
3. 학과선택시기				
원서접수기간중	48			
고3부터 원서접수전	84	4.58**	0.004	
고1부터 고2말	20			
중학교 이전	4			
4. 전공에 대한 기대에 만족하는 정도				
매단히 만족	6	25.66		
다소 만족	60	24.18		
보통	19	20.68	3.50**	0.009
다소 불만족	66	22.75		
매단히 불만족	7	21.71		

주 : * P < 0.05, ** P < 0.01

서 개인간 또는 개인내 역할을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적응력이 우수하다는 언급이다.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하므로 인간의 생명·권리·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치를 지니며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학문의 목적이 있다. 하영수 등(1976)이 간호교육을 위해 이념조사한 바로 조사대상자의 96%가 인정하고 있는 내용은 (1)대인관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태도를 길러준다. (2)성실한 태도를 함양한다. (3)협동능력을 길러준다. (4)동료간의 협동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한운복 등(1974)이나 신경자(1974)의 논문에서는 간호사와 환자간의 인식차이를 대비시키면서 간호서비스의 주고객인 환자가 간호사에게 원하는 것은 충분한 언어적 설명과 미소와 같은 비언어적 친절로 주사나 투약 등의 기능보다 우선한다고 했다. 간호학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인간관계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진지한 동기의식에 의한 능률적인 인간관계는 전문직 간호 서비스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학생에게 잠재해 있는 사회 영역의 자아를 개발하고 긍정적으로 보장시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1973년 국제 간호협의회에서는 간호사의 임무에 집착하지 말고 간호사의 역할을 성장·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대책으로서의 교육과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인간개발에 목적을 둔 교육과정으로써 교육대상자인 학생을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존재로 보아 학생의 경험과 능력개발을 강조한 것이며, 학생의 요구중심적 교과 보안을 요청한 것이다.

이를 마슬로우의 삶의 동기측면에서 재고해 본다면 충족될 때 권태감이 존재하는 외부의 존재 결핍동기보다는 충족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긴장자세를 즐거운 것으로 계속 추구하게 되는 개인 내면의 자율적인 충족인 성장동기적 요구가 간호학생에게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간호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부여한다거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는 내용이 바로 그 예라 하겠다.

간호학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전망은 1970년대 초반 4년제 대학생들이 대상이었던 이은옥 등(1971), 한정석(1973)의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진출이 용이하거나 가정에 이용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편익적 방편으로서의 입장에서 벗어나 비록 그 대상이 3년제 전문대학생들이긴 하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에 조경순(1977), 채경남(1979), 이경숙(1982)의 자료에서는 교양과 창의력을 갖춘 학문이며 봉사정신을 필요로 하는 학문이라는 견해 쪽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이 엿보인다. 학생의 요구가 이처럼 성장동기쪽으로 진행될 때 학생의 간호학 수용성을 높이며 대학생활내 우수한 적응력 배양을 위해 필요로 되는 긍정적인 사회영역자아는 대학입학 초기인 1학년때부터 쌓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사회영역자아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것이 표 2-5에 나타나 있다. 중요한 순서는 가족크기, 제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상담, 가정영역자아개념, 가족의 월평균 총수입, 자기조절영역자아개념, 전공에 대한 기대만족도 순이었다. 각 변수별로 사회영

표 2-5 사회영역 자아개념의 영향변수

제변수	R ²	R ² Change	B	β
가정적 자아개념	0.074	0.074	0.188	0.175
부모와 상담	0.105	0.031	-2.025	-0.188
가족크기	0.130	0.024	-1.979	-0.215
자기조절 자아개념	0.146	0.016	0.162	0.134
가족의 평균 월수입	0.160	0.014	0.872	0.141
전공에 대한 만족도	0.167	0.006	0.729	0.085
R ² =0.167 Adjusted R ² =0.131 F=4.633 **				

주: ** P < 0.01

표 2-6 가정영역 자아개념

제 변 수	No.	\bar{x}	t 또는 F 값	유의도
1. 학년				
1학년	37	23.91		
2학년	38	24.89	1.42	0.238
3학년	40	24.05		
4학년	43	25.48		
2. 출신학교 소재지				
서울지역	87	24.00	-2.18*	0.031
서울외 지역	71	25.36		
3. 제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상담				
한 다.	131	25.10	3.37**	0.001
안한다.	25	25.17		
4. 전과 희망경험.				
있었다.	70	23.84	-2.06	0.042
없었다.	85	25.17		

주 : * P < 0.05, ** P < 0.01

역 자아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정영역 자아개념이 7.7%로 제일 컸고, 두번째로 설명력이 큰 제 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상담 3.1%를 합하면 이 두 변수만으로도 총 10.5%의 설명력을 갖는다. 이외에 가족크기, 자기조절 영역 자아개념, 가족의 월평균 총수입, 전공에 대한 기대만족도가 추가될 때 사회영역자아개념을 총 16.7% 설명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이 분야 관련논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들과 전주어 볼 때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2) 가정영역 자아개념

가정영역 자아개념은 표 2-6과 같다. 학년별로 볼 때 고학년일수록 저학년에 비해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1학년의 23.91점에 비해 4학년은 25.48이었지만 이 차이는 의미있지 못하였다.

출신고등학교 소재지 별로는 서울지역보다 지방 졸업생이 훨씬 더 가정영역 자아가 긍정적이어서, 각각 24.0과 25.36을 나타냈다.

제문제에 대해 부모와 상담하는 학생군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훨씬 더 긍정적 가정영역 자아를 보여 주었는데 이는 25.10에 비해 22.28이었다.

입학 후 전과를 원했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23.84이었고,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이 25.17을 나타내 전과를 원한 일이 없었던 학생들이 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Schultz (1965)는 간호학과 대학생활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생의 요구 구조는 변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를 Levitt (1962)는 내용면에서 보아 남성적 요구는 약해지고 여성적 요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최양자(1976)는 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에서 고학년에 이룰수록 학리적 가치가 증가되지만 학년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추구하고 있는 매우 높은 가치관은 종교적 가치, 심미적 가치, 사회적 가치의 순서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본 학과의 구성원이 모두 여성이며 인간애와 봉사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학문의 독특한 특성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정영역의 자아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제 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상담이 5.4%로 가장 크고, 가족의 월평균 총 수입이 2.5%로 그 다음이었다. 여기에 전과 희망경험, 학년의 2가지 변수가 추가될 때 가정영역 자아개념을 10.5% 설명할 수 있음을 표 2-7을 통해 볼 수 있다.

표 2-7 가정영역 자아개념의 영향변수

계 변 수	R ²	R ² Change	B	β
부모와 상담	0.054	0.054	-2.609	-0.260
가족의 평균 월수입	0.080	0.025	0.829	0.143
전과 회망경험	0.096	0.016	0.813	0.212
학년	0.105	0.008	0.334	0.095
R ² = 0.015 Adjusted R ² = 0.080 F = 4.136 **				

주: ** P < 0.01

3) 자기조절영역 자아개념

자기조절영역 자아개념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표 2-8과 같다. 1학년과 4학년에서 각각 17.48 및 17.76으로 2학년 및 3학년의 17.07과 16.20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의미있는 것이 못 되었다.

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해 부담을 크게 느끼는 학생이 적게 느끼는 학생군에 비해서 대체로 자기조절 영역이 부정적이었다. 특히 부담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20.50임에 비해 대단히 많다고 응답한 학생은 16.00으로 크게 낮았고, 이 차이는 의미 있었다.

제 문제에 대해 부모와 상담하는 학생과 안하는 학생간에는 각각 17.48 및 15.36으로 매우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부모의 생존여부별로는 편부 또는 편모 슬하의 학생인 경우 15.36으로 가장 낮고, 양친이 다 생존해 있는 학생의 경우 17.31, 양친 모두 사망한 경우 19.00으로 나타나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자기 조절영역 자아는 보다 긍정적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대학 생활비를 통해 경제적 측면의 부담능력면에서 볼 때 부모중 부친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에 있는 학생이 부모외의 형제, 친척, 본인 등이 부담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하여 자기조절영역 자아가 더욱 긍정적이었다.

한편, 교외 장학금에 의하여 대학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학생의 자기조절영역 자아는 부친이 부담자인 학생들보다 다소 높아서 전자가 17.66이고, 후자가 17.57이었다.

유사한 연구로 최계영(1974)은 간호학 학습환경에 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성격으로서 Order 즉 일을 수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정돈을 잘하는 요구, Nurturance 즉 불행함을 돕고자 하는 요구, Abasement 일의 잘못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느낄 줄 아는 요구를 제시했다. 이숙자(1977)는 성격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업성적과의 관계를 규명한 바 간호전문대생 3년간의 전반적인 성적과는 무관하지만 임상실습성적과는 성격변수가 상관관계가 깊다고 하였다. Smith (1969)역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는 성격변수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자기조절영역 자아는 환경에 적응하는 성격적 단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이 영역의 자아는 간호학과 학생에 있어서는 사회영역이나 가정 영역의 자아에 비해 비교적 그 긍정수준이 낮은 것이었다.

자기조절영역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제 문제에 대해 부모와의 상담이 5.3%의 설명력을 나타낸 것을 표 2-9를 통해 볼 수 있다.

3. 학생의 전공역할에 관한 교육자의 인식

교육자들이 나타내고 있는 학생의 전공역할에 대한 인식은 총 25개 문항중 15개 문항 즉 60.0%가 4점 이상이었고, 7문항인 28.0%가 3점 이상 4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인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만 3개의 문항 즉 12.0%만이 3점 이하의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표 2-8 자기조절영역 자아개념

제 변 수	No.	\bar{X}	t 또는 F 값	유의도
1. 학년				
1학년	37	17.48	1.48	0.220
2학년	38	17.07		
3학년	40	16.20		
4학년	43	17.76		
2. 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부담정도				
전혀 없다.	2	20.50	2.52*	0.043
별로 없다.	10	17.70		
보통이다.	20	18.65		
다소 있다.	85	17.18		
대단히 많다.	41	16.00		
3. 제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상담				
한다.	131	17.48	2.79**	0.006
안한다.	25	15.36		
4. 부모의 생존유무				
부모생존	134	17.31	3.08*	0.048
편부 또는 편모	19	15.36		
부모사망	4	19.00		
5. 대학생활비(등록금+생활비) 부담자				
부	128	17.57	2.99*	0.013
모	11	14.63		
형제, 자매	9	15.00		
친척, 친지	2	15.00		
본인	3	13.66		
교외장학금	3	17.66		

주: * P < 0.05, ** P < 0.01

표 2-9 자기조절영역 자아개념의 영향변수

제 변 수	R ²	R ² Change	B	β
부모와 상담	0.053	0.053	-1.790	-0.202
부의 연령	0.073	0.019	0.114	-0.142
전공에 대한 기대만족도	0.078	0.005	0.507	0.072
가족크기	0.079	0.000	0.103	0.027
R ² =0.079 Adjusted R ² =0.053 F=3.019*				

주: * P < 0.05

표 3-1 교육자의 일반적 특성별 전반적인 인식

제 변 수	No. (%)	\bar{x}	t 또는 F 값	유의도
연령(세)				
20-29	7(20.6)	92.71	0.472	0.628
30-39	19(55.9)	91.89		
40세 이상	8(23.5)	89.88		
교육경력(년)				
1-10	7(20.6)	92.86	0.283	0.755
11-15	13(38.2)	91.77		
16-25	14(41.1)	90.79		
결혼상태				
기혼	25(73.5)	91.56	-0.05	0.964
미혼	9(26.9)	91.67		
종교				
있음	26(76.5)	90.88	-1.26	0.217
없음	8(23.5)	93.88		
계	34(100.0)			

전반적인 긍정인식에 대하여 교육자의 제특성별로 제표한 것이 표 3-1인데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들의 연령은 과반수 이상이 30-39세 군에 있었으며 교육경력도 대체로 10년 이상이 넘는다. 또한 기혼자가 73.5%로 대부분이며 종교소유율도 76.5%를 나타내었다. 이는 우리나라 간호대학 교수진의 경력 및 연령 등의 환경과 대체로 비슷하다.

1) 교육자의 3가지 최상위 긍정인식

표 3-2는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내용의 문항을 순서적으로 3가지 발췌해 제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 본 것이다.

가장 긍정적이었던 것은 민주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모델에 관한 것으로 평균 4.83을 나타내었다. 이는 교육자의 연령과 경력면에서 젊고 경력이 짧을수록 더욱 수용적인 면을 보이고 있으나 연령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교육경력이 10년 미만일 경우 평균 4.71로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16년 이상의 교육자인 경우는 평균 4.29로 그 값의 차이가 다소 있었다.

제2위의 긍정인식 문항은 “교육자의 행위는 학습

자의 역할모델이 된다”로써 평균 4.35이었다. 이 역시 제 변수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교육경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인식이 다소 떨어져 16년 이상 경력자가 4.29를 나타내었지만 이 결과 역시 높은 긍정적 인식임은 자명하다.

제3위의 긍정적 인식은 교육자가 학생들을 위한 지식 습득의 촉진자라는 문항과 이론에 기초를 둔 교육의 수행에 관련된 문항이 공히 평균 4.32로써 같았다. 두 문항 모두 종교가 없는 군이 종교를 소유한 군보다 그 인정수준이 높다.

교육경력에 따라서는 교육자가 학생의 지식습득이 촉진자라는 인식은 고경력일수록, 이론에 기초를 둔 교육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저경력일수록 인정수준이 다소 높았으나 그 차이는 의미있지 못하였다.

김광주 등(1973)이나 김영숙(1975)의 논문에서는 교육자로서의 임상수간호사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적고, 일반간호사들은 자신의 자질향상에 노력안하는 인물로써 학생들의 시야에 비추어 지고 있다. 최근 김조자 등(1990)의 논문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었던 점은 학생시절에 간호사로서의 역할 적응에 도움이 된 사람은 수간

표 3-2 교육자의 3가지 최상위 긍정인식

1 위 : 민주적 그룹리더의 역할모델은 중요하다.					4.38±0.60	
계	변	수	No.	x	t 또는 F 값	유의도
1. 연	령 :	20~29세	7	4.85	3.353 *	0.048
		30~39세	19	4.21		
		40세이상	8	4.37		
2. 교육경력 :	1~10년	7	4.71	1.366	0.270	
	11~15년	13	4.31			
	16~25년	14	4.29			
3. 결혼상태 :	기혼	25	4.28	-1.69	0.100	
	미혼	9	4.67			
4. 종	교 :	있음	26	4.35	-0.62	0.537
		없음	8	4.50		
2 위 : 교육자의 행위는 학습자의 역할모델이 된다.					4.35±0.60	
1. 연	령 :	20~29세	7	4.43	0.093	0.912
		30~39세	19	4.32		
		40세이상	8	4.38		
2. 교육경력 :	1~10년	7	4.43	0.155	0.857	
	11~15년	13	4.38			
	16~25년	14	4.29			
3. 결혼상태 :	기혼	25	4.28	-1.19	0.241	
	미혼	9	4.56			
4. 종	교 :	있음	26	4.38	0.55	0.585
		없음	8	4.25		
3 위 : 교육자는 학생들의 지식습득을 위한 촉진자이다.					4.32±0.54	
1. 연	령 :	20~29세	7	4.29	0.053	0.948
		30~39세	19	4.32		
		40세이상	8	4.38		
2. 교육경력 :	1~10년	7	4.29	0.048	0.953	
	11~15년	13	4.31			
	16~25년	14	4.36			
3. 결혼상태 :	기혼	25	4.28	-0.79	0.437	
	미혼	9	4.44			
4. 종	교 :	있음	26	4.27	-1.07	0.293
		없음	8	4.50		

주 : *P<0.05

3위 : 교육은 충분히 연구된 이론에 기초되어야 한다.				4.32±0.54	
제 변 수	No.	\bar{x}	t 또는 F 값	유 의 도	
1. 연 령 : 20~29세 30~39세 40세이상	7	4.71	2.28	0.075	
	19	4.26			
	8	4.13			
2. 교육경력 : 1~10년 11~15년 16~25년	7	4.57	0.98	0.386	
	13	4.23	4.29		
	14	4.29			
3. 결혼상태 : 기혼 미혼	25	4.28	-0.79	0.437	
	9	4.44			
4. 중 교 : 있음 없음	26	4.31	-0.31	0.761	
	8	4.38			

호사·교수·선배간호사에 앞서서 동료이었다. 학생들의 이러한 인식과 앞서 진술된 결과에서 교육자의 행위는 학생의 역할모델이요 지식 습득의 촉진자라는 견해에 대해 교육자가 최상위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은 학생과 교육자간의 동상이몽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식간의 차이를 재고해 보지 않더라도 간호사의 위상 재확립을 위한 노력은 중요한 것일 수 밖에 없다.

한정석(1973), 안선주(1975), 김조자 등(1978)은 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느끼는 갈등중 으뜸인 것이 교육내용이 학생들이 기대한 것과 다르다는 데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연순(1974)역시 유사한 이유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이론체계가 결핍되어 있다는 데서 갈등이 내재한다고 보았다. 이상의 내용은 하영수 등(1976)이 임상교육은 간호이론 응용 능력을 길러준다는 거의 절대적인 긍정적 인식의 보고 및 본 연구의 대상자인 교육자들이 보여준 연구된 이론에 기초한 교육이어야 한다는 긍정적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2) 교육자의 3가지 최하위 부정인식

교육자가 학생의 역할에서 부정인식을 나타낸 것은 표 3-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3가지 문항에 한정된다.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간호학을 배우는 것은 임상분야와는 별개이다. 즉 어떤 임상분야도 다른 임상분야에 기초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평균

2.00을 나타내었다. 이는 간호학문의 특수 제 분야에 관한 독특성을 묻는 내용이었는데 설문 문항으로 보아 개념 전달이 잘 안되어 나타난 부정인식이 아닌가 여겨진다. 연령과 경력이 짧고 미혼이며, 종교가 없는 교육자에게서 더욱 부정적이었으나 이 모두 의미있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문항은 학생의 간호학 지식체 보존을 위한 방법으로 불시적인 반복효과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본 것인데 이는 평균 2.82를 나타내 부인한 점은 정규적이며 집중적인 반복효과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변수의 특성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세번째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문항은 간호학을 총체적인 의미에서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것으로 “간호학의 특정내용은 전체와의 맥락안에서만이 의미있고 중요하다”로 평균 3.00을 보여주었다. 이는 교육자의 경력별로 볼 때 10년 이하나 16년 이상인 군보다 그 중간계층인 11-15년 사이에 있는 교육자가 3.23으로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이 짧거나 경력이 긴 교육자의 경우 간호학문의 분야별 특수성을 살린 교육의 필요를 더욱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종교별로는 종교가 있는 교육자가 없는 교육자에 비해 이를 더욱 긍정하나 이 모두 의미있지는 못하였다.

간호행위의 독창성에 관한 조사 및 그 인식과 관련되어서 이성심 등(1990)은 간호사들이 간호순회

표 3-3 교육자의 3가지 최하위 부정인식

1 위 : 간호학을 배우는 것은 임상분야와는 별개이다. 즉, 어떤 임상분야도 다른 임상분야에 기초가 되지 않는다. 2.00±1.02				
제 변 수	No.	\bar{x}	t 또는 F 값	유 의 도
1. 연 령 : 20~29세	7	1.71	0.356	0.697
30~39세	19	2.10		
40세이상	8	2.00		
2. 교육경력 : 1~10년	7	1.71	0.411	0.666
11~15년	13	2.15		
16~25년	14	2.00		
3. 결혼상태 : 기혼태	25	2.16	1.570	0.127
미혼	9	1.56		
4. 종 교 : 있음	26	2.04	0.390	0.697
없음	8	1.88		
2 위 : 확증된 정보를 오래 보유하기 위하여는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회상보다 일정간격 또는 불규칙한 회상이 더 효과적이다. 2.82±0.83				
1. 연 령 : 20~29세	7	2.71	0.152	0.859
30~39세	19	2.89		
40세이상	8	2.75		
2. 교육경력 : 1~10년	7	2.85	1.266	0.296
11~15년	13	3.07		
16~25년	14	2.57		
3. 결혼상태 : 기혼	25	2.96	1.630	0.113
미혼	9	2.44		
4. 종 교 : 있음	26	2.85	0.280	0.780
없음	8	2.75		
3 위 : 간호학에서의 특정내용은 전체와의 맥락안에서만 의미있고 중요하다. 3.00±0.78				
1. 연 령 : 20~29세	7	3.00	0.000	1.000
30~39세	19	3.00		
40세이상	8	3.00		
2. 교육경력 : 1~10년	7	2.86	0.920	0.409
11~15년	13	3.23		
16~25년	14	2.86		
3. 결혼상태 : 기혼	25	3.00	0.000	1.000
미혼	9	3.00		
4. 종 교 : 있음	26	3.07	1.04	0.306
없음	8	2.75		

와 같은 독자적 간호행위의 수행빈도는 불과 17.3%로 적다고 하였다. 강윤희(1974)도 이미 오래전에 간호기록부 조사를 통해서 기록의 94.3%가 투약으로 질병중심의 기록이었고,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심리사회적 상태의 평가와 간호 서비스 항목에 관한 기록은 3.2%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 김순자(1973)나 한운복 등(974)은 이처럼 독자적 간호행위 수행이 적은 이유를 병원 입원시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입원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의 사회심리적 영역의 간호요구가 노출되지 않고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지나치게 일상간호를 의뢰할 뿐 아니라 증상·증후에 관한 관찰을 간호사에게 보고해 주기를 원하는 인식도 컸음을 인정한 바 있다. 신봉혜(1972)는 간호 부분에 도입되는 보조인력으로 인해 간호의 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김영숙(1975)의 논문에서는 간호행위가 창의적 방법으로 수행되다는 점에 10%의 학생만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간호학생의 눈에도 간호학이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는 학문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IV. 요약 및 결론

1990년 3월 현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재학생 158명과 이들의 간호학 전공교육을 강의와 실습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 34명을 대상으로 학생에 관한 제반특성, 전공성취를 위한 자아개념, 학생의 전공역할에 관한 교육자의 인식을 파악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설문조사에 의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학생의 제반특성

입학전 전공학과를 선택했던 시기는 대체로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에 단시일내 이루어지며, 그 선택의 동기가 단순히 고교재학시 성적에 근거하므로 전공학과에 대해 사전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입학하고 있었다.

입학후에 전과를 원했던 경험자가 많았던 까닭도 위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전공에 대한 기대 만족도는 입학년도인 1학년이 제일 높아서 대학 합격에 대한 기쁨을 간직한 것으로 나타났고,

2, 3, 4학년은 1학년보다 만족수준은 낮지만 고학년 일수록 만족수준이 높고 간호학에 관한 후호적인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이 분야 장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었다.

2. 전공성취를 위한 자아개념

가정영역 자아개념이 사회영역이나 자기조절영역 자아보다 높은 긍정적 인식을 보임으로써 본 학과의 구성원인 학생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과 인간애 및 봉사이념이 기저를 이루는 간호학과의 독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제 변수별로는 서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과를 원했던 경험이 없고, 신변문제를 부모와 상담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가정영역 자아가 긍정적이었다.

사회영역자아는 높은 학년 일수록, 전공에 만족하고 신변문제를 부모와 상담하는 학생군에서 그렇지 못한 학생군에 비해 훨씬 긍정적이었다.

이는 간호학이 전공이라는 사회과제에 대해 생각과 행동을 통해 참여가치가 높다고 긍정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간호학문에 대한 학생스스로의 관리능력이 발전됨을 나타내 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선 두 영역에 비해 긍정적 인식이 크게 떨어지는 자기조절 영역자아는 신변문제에 대해 부모와 상담하지 않으며, 대학 생활경비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교육과정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대학생활환경에 적응하는 자신을 보여주는 자기조절영역의 자아개념을 통하여 대학은 학생의 후생복지 및 교육과정에 관해 충분히 orientation 하는 기능의 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학생의 전공역할에 관한 교육자의 인식

교육자의 매우 긍정적인 인식은 평균 4.32를 넘은 민주적 지도자 역할, 학생을 위한 역할모델 및 지식습득의 공급원으로서의 교육자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 반면에 제간호분야의 전문성, 학습의 규칙적인 강화효과 총체적 간호의 중요성은 평균 3.09이하로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학생측면에서 이 결과를 추론해 본다면 간호사는 전문직의 위상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연구하는 태도와 행동이 학생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참 고 문 헌

1. 간로이, 현행교육제도 바람직한가-간호교육가 입장에서, 대한간호, 16(5) : 18-19, 1977
2. 강윤희, 간호기록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4(1) : 22-37, 1974
3. 간호전문대학생들의 임상실습현장에서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실습의 내빈도를 중심으로, 간호학회지, 13(3) : 1-33, 1983
4.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제2전(13-1), 서울특별시 1985
5. 김광주, 이영자, 최공옥, 학생을 통해 본 내외과 간호학 임상교육의 성취도, 대한간호, 12(4) : 65-80, 1973
6. 김소야자, 정신과 간호실습에 대한 간호대학생과 간호학교학생들의 태도비교 연구
7. 김수지 외8인, 한국간호교육기관의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 분석, 대한간호, 25(2) : 48-56, 1986
8. 김순자, 임상간호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대한간호, 12(5) : 73-82, 1973
9. 김애실, 간호학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4(2) : 1-16 1974
10. 김영매, 간호대학생들의 사회계층적 배경과 교육적 문제, 대한간호, 12(3) : 59-66, 1973
11. 김영숙, 임상간호교육을 위한 학생간호사의 태도 조사, 중앙의학 28(5) : 549-554, 1975
12. 김정자, 한·미 간호교육과정의 비교연구-간호대학과정을 중심으로, 간호학회지, 7(2) : 60-82, 1977
13. 김조자, 박지원, 신규간호사의 역할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간호학회지, 20(1) : 50-6-, 1990
14. 김조자, 전산초, 최옥신, 유지수, 전경애, 임상실습지도 방안개선을 위한 실험적 연구, 연대간호학 논집 제2집 : 1-24, 1978
15. 김주희,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조사 연구, 대한간호, 21(1) : 44-55, 1982
16. 도복늬, 간호교육과정에 관한 분석연구, 간호학회지, 4(1) : 81-94-1974
17. 손옥순, 한국간호교육개선에 관한 연구, 연대, 교육학 석사, 1969
18. 신경자, 간호업무 중요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4(1), 135-150, 1974
19. 신봉혜, 간호사의 의식구조에 관한 일 고찰-전문직화를 중심으로, 대한간호, 12(1) : 79-88, 1972
20. 안선주, 간호교육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태도조사, 중앙의학, 4(5) : 521-530, 1975
21. 이경혜, 간호대학생들의 가치관과 가치변화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15(3) 21-30, 1985
22. 이경혜, 하영수, 간호개념교육이 학생들의 간호개념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간호학회지, 13(3) 95-105, 1983
23. 이미경, 간호대학생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적간의 상관관계 연구, 이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24. 이성님, 지성애,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양상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0(1) : 61-78, 1990
25. 이수원, 장성수, 김재환, 대학에서의 학업성취요인에 관한 분석-학사경제학생과 우수학생의 특성 비교, 대학생활연구, 한양대 학생생활연구소, 제4호 5-64, 1986
26. 이수원, 구본용, 87재학생 실태조사, 대학생활연구, 5 : 5-64, 1988
27. 이숙자,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10(2) : 41-52, 1980
28. 이숙자, 간호학생의 학업성적과 성격검사와의 상관연구, 간호학회지, 7(2) : 95-106, 1977
29. 이연순, 간호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일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4(2) : 67-77, 1974
30. 이은옥, 이미라, 간호학생의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대학 간호학생의 심리적 계 특성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간호학회지, 3(1) : 53-65, 1972
31. 이정숙, 간호학생의 간호학 선택에 대한 태도조사 연구, 중앙의학, 42(2) 49-57, 1982
32. 이은옥, 우옥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의 입학전 계 특성 및 태도와 입학후 갖게 되는 간호전문직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대한간호 10(7) : 25-37, 1971
33. 장관자, 양호교사의 역할인식과 일반교사 및 학생의 역할기대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4(2) : 107-120, 1974
34. 전산초, 간호교육자가 본 문제와 과제, 대한간호, 11(6) : 33-34, 1972
35. 정원식, 자아개념검사, 코리아테스팅 센터, 1968
36. 정문숙, 간호학생들의 이념과 직업현실에 대한 인식상태에 관한 연구, 공중보건잡지, 13(2) : 183-193, 1976
37. 정연강, 김윤희 외 2인, 간호교육 철학 정정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간호학회지, 18(2)

- : 162-188, 1988
38. 조경순, 간호교육에 대한 일부 간호학생들의 태도 조사, 대한간호, 16(6) : 56-77, 1977
 39. 채경남, 간호교육에 대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교 조사연구, 중앙의학, 36(1) : 43-48, 1979
 40. 최계영, 간호대학생의 요구구조에 관한 일연구, 간호학회지, 4(2) : 38-49, 1974
 41. 최명애,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7(1) : 80-87, 1977
 42. 최양자, 간호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연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6
 43.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간호대학교육현황, 제1호, 1989
 44. 하영수, 4년제 간호대학에 관한 조사연구(1) : 입학동기 및 교육과정에 관한 반응조사, 대한간호, 8(6) : 32-40, 1969
 45. 하영수, 한운복, 한국간호교육이념 정립을 위한 기초조사, 대한간호, 15(6) : 42-60, 1976
 46. 한운복, 김순자, 이인자, 간호사의 역할인식과 환자의 기대-기본간호 역할의 가치인식을 중심으로, 간호학회지, 4(2) : 144-158, 1974
 47. 한정석,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3(2) : 121-132, 1973
 48. Bevis, E. O., Curriculum Building in Nursing, Mosby, 3rd ed., pp74-98, 1982.
 49. Levitt, E. E. et al. The Students Nurse, the College Woman and the Graduate Nurse: A comparative Study, Nursing Research, (11):80-82, 1962
 50. Schultz, E. D., Personality Traits of Nursing Students and Faculty Concepts of Desirable Traits, Nursing Research, (14):261-268, 1965
 51. Smith, J. E., Personality Structure in Beginning Nursing Students, Nursing Research, (17):140-145, 1968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for Curriculum Building in Nursing

Moon·Hee Jung, Nan·Young Lim, Sun·Ha Choi, Keong·Jin Do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information useful in developing a nursing curriculum.

The sample consisted of 158 nursing students in Hanyang University and 34 faculty members who had taught them in their college & the practical area.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 their self-concept, teacher's perception of student's professional rol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When the students applied for the university, they decided what they would specialize in. Because the motive of application for their major was simply based on their high school records, they were admitted to their university without previous knowledge of their major.

The reason why they wanted to transfer to another course after the admission was the same as above.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ir major was the highest in Freshman, but in other grades the higher their grades were, the more they satisfied with their major and they had a better prospect about their speciality.

2. Self-concept in performance for their major

Self-concept in home aspects was more positive perception than in social aspects & self control aspects. It resulted from the fact that all students were females and the nursing uniqueness was based on the spirit of humanity & service.

The students who had graduated from the high school in rural area wanted to transfer to another course and taken counsel their personal problems with their parents had higher self-concept in home aspects. As their grades were higher, the self-concept in social aspects became higher.

The students who were satisfied with their major and took counsel their personal problems with their parents had more positive self-concept in social aspects. Self-concept in self control aspects was lower than other aspects. The students who didn't take counsel their problems with their parents, were burdened with their educational expenses and their curriculum had more negative self-concept in self control aspects. Therefore the university should be concerned about student's welfare and provide detailed orientation about their curriculum.

3. Teacher's perception about learner's professional role

The role model of democratic group leader, role models for learners facilitator in a student's reach for knowledge and teaching based on soundly researched theory showed more positive perception than other factors. Their mean values were over 4.32.

The professionalism of all nursing area, repetition with reinforcement for learning, nursing as part of the meaningful context of the whole showed negative perception. Their mean values were below 3.00.

Therefore the nurse as a teacher should try to promote the locus of nursing profession and participate in their research actively.